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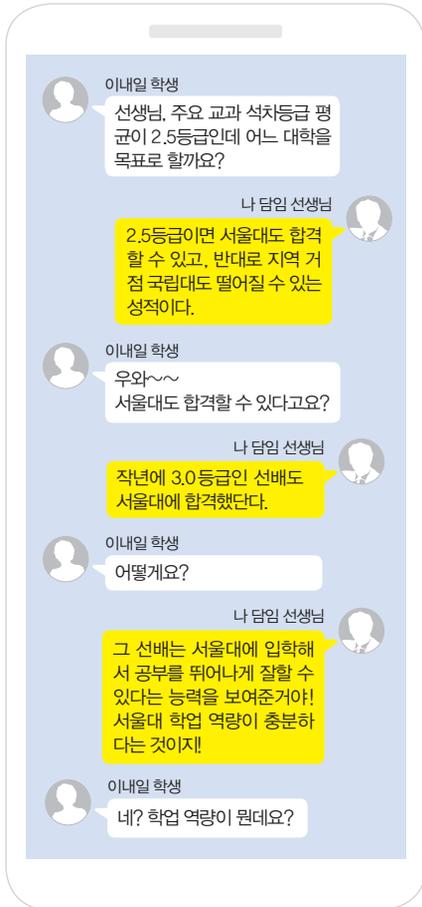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 교육과정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학생부에 나타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 경력,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형에 반영함.

- ✦ 서울대는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인재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이나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교내 탐구 활동, 교내 경시대회, 독서 활동, 방과 후 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고교 재학 중의 활동에서 학업 역량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평가합니다.
- ✦ 학업 역량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학업 성취도' 부문에서 9개 평가 요소, '학업 태도와 의지' 부문에서 4개 평가 요소, '탐구 활동' 부문에서 3개의 평가 요소 등 총 16개의 평가 요소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측정합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학기별로 성적을 고르게 유지했는지, 학기별로 성적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 ✦ 학업 태도나 의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는가?'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등도 평가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독서 활동, 수상 경력, 진로 활동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단지 교과 성적에 그치지 않고 수험생의 자발적 의지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 적절한 학습 전략을 구사한 과정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대입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이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수능과 내신 성적이 1등급대인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수시 전형에서 절반 이상이 낙방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면서 학업 역량 향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수험생들이 합격합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즉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성적이 좀 낮아도 학업에 대한 태도나 의지가 강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등으로 학생부를 화려하고 묵직하게 만들어도 입시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고교 3년간 204단위를 배우는데, 이 중 180단위(88.2%)가 교과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해야 하고, 지필 평가나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은 자기 주도성을 특별히 평가합니다.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워서 성적을 향상시킨 경험,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책을 찾아 읽고, 논문을 검색하여 확인하며 지식의 깊이와 폭을 넓힌 경험 등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 학업 역량의 향상에 주목합니다. 학년과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업 역량이 어떻게 발전되고 향상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계속 상승하거나, 탐구 활동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거나, 독서 이력이 나 타난 도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교과 성적인가요?

물론 교과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설명회에서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도' 잘한 학생을 뽑겠다고 설명합니다. 경희대와 중앙대, 한양대는 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정했습니다. 경희대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한양대는 서류 평가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 25%, 창의적 사고 역량 25%, 자기 주도 역량 25%, 소통 협업 역량 25%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다른 평가 요소에서 만회할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